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도표 36選

# 조부터 평민까지 불교 통해 안락얻는다

## 15. 고려의 불교의례와 신앙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위로는 국왕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불교가 신앙되었다. 국가 차원의 불교의례뿐 아니라 다양한 법회와 재회, 결사, 사경 등이 전시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규모 불사가 행해졌다. 불교신앙 또한 극락정도로 인도하는 아미타불, 현재의 고통을 구제하고 이익을 주는 관음보살, 윤회의 나쁜 과보에서 구원해 주는 지장보살 등 신앙의 대상이 다각화되었고 각종 결사와 지역 공동체 조직인 향도도 염불, 매향 등을 행하며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고려시대 불교의례 가운데 국가적 연례행사로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밖에 국왕의 즉위기념 의례였던 보살계 수지와 관정도량 설행, 호국 기원의 성격을 가진 담선법회와 백고좌 인왕도량 등 왕실과 국가 차원의 의례와 법회가 행해졌다. 그리고 대개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대규모 반승행사가 동시에 펼쳐졌다. 국가적 의례는 봉은사와 같은 왕실 원찰에서도 열렸지만 궁궐 내 불당이나 정전에서도 설행되었다. 또한 제석, 용왕, 인왕과 같은 여러 신중에 대한 도량이 개설되고 법석이 마련되었으며, 기우제나 천재지변을 극복하기 위한 의례도 행해졌다. 각지의 사찰에서는 우란분제 등 각종 재회가 연중 이어졌고 불사의 낙성 및 경한 행사에서도 법회가 거행되었다.

불교의례는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민심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세기 후반 성종 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고 유교 정치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는데, 당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는 “불교는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현재의 급한 시무입니다”라고 하면서 불교의功德신앙과 사회경제적 폐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불교는 고려시대 내내 신봉되었고 경향 각지에서 수많은 불교의례가 행해졌다.

특히 국난을 물리치기 위한 호국법회와 재회가 다수 확인되는데, 〈인왕경〉을 봉행하는 경행 행사가 연례적으로 치러졌고 호국적 성격을 띤 나한신앙이 유행하였으며 다라니를 외어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비는 소제도량과 밀교도량도 개설되었다. 13세기 대몽항쟁기에는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진병 의례가 자주 설행되었다.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함에 따라 봉은사와 법왕사, 현성사 등 개경 소재 주요 사찰들이 규모를 축소하여 강화도에 다시 세워졌고, 이들 사찰에서는 국가의례였던 연등회와 팔관회, 그리고 호국도량인 인왕도량, 외침을 물리치기 위한 문두루도량과 마리지천도량 등이 설행되었다. 이 시기에 화엄신종도량, 천병신종도량 같은 불국토를 보호하는 신종도량을 집중 개설했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국력을 기울여 재조대장경을 조판하는 등 불교에 대한 신심에 기대어 전쟁장교와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1259년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기 직전인 1257년의 기록에서 “제책이 더 나올 것이 없고 오직 불우와 신사에서 기도할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모습.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국가 행사로 봉행했다.

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종교를 통해 그나마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불교의 종교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세에 대한 염원의 해소였다.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확실한 문제였고 불교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던 것이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도입된 후 불교의 내세관과 정도를 향한 염원은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망자의 추도 의례인 상례 또한 승려와 지배층을 중심으로 점차 불교식 의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일반민까지 모든 이들이 불교식 상례를 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화장의 경우 많은 목재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보통의 경우 이를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고려시대에는 민간에서 발판에 시체를 놓아두는 풍조의 풍습이 행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승려는 물론이고 왕실과 귀족 관료들의 경우 화장과 같은 불교식 상례가 관행적으로 행해졌다. 한편 유교식 상례나 삼년상의 사례도 있었으며 매장이 이루어지는 등 불교와 유교식 의례가 혼용되는 모습도 보인다. 현존하는 고위층의 묘지명을 보면, 1105년 정목이 용흥사 덕혜원에서 죽자 불교식 의례를 거행해 절의 서쪽에 화장하였고, 1077년 선종의 장인이 이경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세상을 뜨자 다비식을 행한 후 유해를 사찰에 안치하여 불사를 설행하고 6개월 뒤에 다시 매장하였다. 당시 화장을 한 후 절에 안치했다가 재매장하는 방식이 예라고 인식되기도 했다. 상례뿐 아니라 제례도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불사를 베풀고 재회를 행하며 망자의 명복을 빌고 차나 다과로 공양하였다. 불교식 천도제로는 사십구제, 우란

연등회·팔관회 국가 행사로 개최  
왕실 권위 높이고 민심 안정 도모  
몽골 침략엔 호국적 나한신앙 유행  
우란분제 등 천도 의식도 활성화  
결사, ‘염불·埋香’ 행복·왕생 기원

분제, 수륙제 등이 설행되었는데, 보통 화장하고 3개월 정도 납골을 사찰에 봉안하였기에 백일재까지는 설행한 후 매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부터는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들이 불교식 상례를 행하는데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고 조선 건국과 함께 화장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매장 유교식 상례가 일반화되었다.

천도제의 일종인 우란분제는 고려시대에 음력 7월 15일 백중에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다. 우란분제는 〈우란분경〉에 의거해 망자의 영가를 추도하고 천도하는 의식이었다. 원래 우란분제는 하안거를 해제할 때 수행 및 공덕을 쌓은 승려를 공양하는 법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우란분경〉의 목련존자 이야기를 부각시켜 효의 측면을 특히 강조하면서 성행하였다. 이후 조상의 명복을 빌고 지옥을 비롯한 삼악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천도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려에서는 늦어도 12세기부터는 들어가신 부모와 조상을 위해 우란분제가 설행되었고, 왕실에서 일반민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행해졌다. 조선 세종대 실록기사에 나오는, “도성의 거리가

리마다 깃발을 세우고 쟁과 북을 치며 탁자를 설치해 공양할 친구를 늘어놓아 행했다. 사녀와 향사의 집에서 이를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앞서 고려시대 우란분제의 설행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5세기 말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도 “갖가지 꽃과 과일을 모아 놓고 우란분을 마련하였는데 도성의 비구니 사찰에서는 특히 성대히 행하였고 부녀자들이 다부어 쌀과 곡식을 바치며 죽은 부모의 영혼을 제사 지냈고 간혹 승려들이 길거리에 탁자를 마련해 행사를 열었다”고 전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천도제로는 물과 육지의 중생과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수륙제를 꼽을 수 있다. 시아 귀회에서 연원한 수륙제는 중국에서 9세기 말~10세기 초에 의식문을 갖춘 독립된 불교의례로 정비되었고 전래는 고려전기에도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후기부터였다. 고려 말에는 왕실의 상례에 수륙제가 포함되었고, 다른 불교제도와는 달리 조선전기까지 국가 차원의 의례로 행해졌다. 조선 태조에 의해 국행 수륙제가 설행되었으며 세종대 국가의례를 정비할 때도 왕실의 기신제가 수륙제로 통합되어 이후까지 존속하였으며 그로인해 〈경국대전〉에 수록된 유일한 불교의례가 되었다.

고려인들은 내세에 극락정도와 같은 불교의 유토 피아로 가기를 기원했고 최소한 6도 윤회 중에서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의 삼악도로 떨어지는 불행한 경우를 피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고려 전시기에 걸쳐 내세신앙으로서 아미타 정토신앙이 크게 유행하였고, 고려후기부터는 삼악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희구하는 지장신앙이 성행하였다. 현존 고려 불화 중 상당수가 아미타불화인 사실은 아미타 정토

신앙이 고려사회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미타불화 중에는 현세의 관음보살과 내세를 위한 지장보살을 좌우로 거느린 그림이 있어 주목된다. 보통은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하는데 망자의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장보살을 도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장신앙과 함께 현생의 업보를 관정하는 시왕에게 지비를 비는 시왕신앙도 고려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려시대 지장신앙의 특징은 망자를 천도하고 추복하는 행위였음에 비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지옥에서 고통 받는 직접 중생을 구제해 주는 영험 있는 보살로 각광을 받았다.

현세신앙으로는 현실의 고통을 덜고 행복과 안락을 기원하는 관음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다. 전신전력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관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언제, 어디서나 몸을 자유롭게 바꾸어 나타나서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관음은 복덕을 나누어주는 자비와 보살행의 화신이었다고 심지어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보살이었다. 고려불화에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따온 수월관음도가 많이 남아있고, 수많은 팔과 손을 가진 천수관음 또한 불교미술의 중요한 도상이었다. 관음신앙은 화엄종, 법상종, 선종, 밀교, 정토신앙 등과도 융합되었는데, 고려후기 화엄학 승려인 체원은 관음보살에게 발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에 주석을 붙였고 〈화엄경〉에서 관음신앙과 관련된 영험담을 모은 책도 펴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신앙공동체인 결사가 다수 조직되었는데, 잘 알려진 지불의 수선사, 요세의 백련사 결사 외에도 만일염불, 매향을 위한 결사 및 향도 조직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만일염불결사 가운데 1123년경에 지리산 수경사에서 열린 결사에서는 선·교종의 승려와 다양한 계층의 3천여 명이 참가하여 염불, 송경, 좌선 등 각자에 맞는 수행법을 실천하였다. 또한 나무 간자에 이름을 새기고 〈점찰염불경〉에 의해 간자를 던져 선악의 보응을 점치는 점찰신앙도 행해졌다. 향도는 지방사회의 지역공동체 조직으로, 981년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향도 20명이 마에 반가상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불상, 탑, 종, 불화 등의 조성과 중창불사, 염불및 재회, 윤회회와 경행, 상장례 등을 함께 행한 기록들이 확인된다.

향도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매향 의식으로서 이는 지역민들이 향나무를 묻는 의식을 함께 행하면서 공동체의 단결과 번영을 기원한 것이다. 매향은 〈미륵상생경〉에 의거하여 향을 묻는 발원자가 향의 연기를 매개로 미륵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의식이다. 침향을 깃발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주로 바닷가 지역에서 행해졌고 시기적으로는 고려 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무신집권과 대몽항쟁, 원간섭기 등 계속되는 내우외환으로 기존 향촌질서에 큰 변동이 발생했고 연해지 개간, 농장 확대 등으로 새로 촌락이 형성되면서 그에 맞는 향촌 공동체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연해 지역은 왜구 등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촌락의 결속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는데, 미륵의 도술천 정토로 왕생하거나 미래의 용화세계를 꿈꾸는 매향의식은 이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발본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01일 오전 6시 40분 -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밀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KBS-1TV "한국의 밤"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01일 일요일 - KBS-1TV 오전 5시 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첫째, 그 성질이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매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진대사를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릴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아간전환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에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동철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0

# 松 根 油

송근유

-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 짙은 슬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 오래 보관하여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 방향제와 구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적을 그려 몇년을 두어도 짙은 슬향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 부적의 품격과 기운을 높입니다.
- 환자 수험생 선방에 몇번 뿌리면 슬 향기가 오래갑니다.
- 심신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적 기름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 용량 : 100ml (스프레이 용기에 담겨있습니다)

· 판매가 : 10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71-828252  
예금주\_이민희

☎ 010-8558-2345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사찰 가능
- 중당사찰 가능

35 친철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형산새마을금고